

제102차 의협 주간 브리핑

(제109차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등/ 2017. 7. 5.)

(가칭)제증명수수료 대책 TF 구성·운영 보고의 건

가. 배경

- 2017. 6. 27.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함
- 진단서 등 제증명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의료현실을 도외시하고 국가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인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주체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우리협회와 의견조율 및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무조건적인 가격강제화 시도 및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월권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마련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가칭)「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경과

- 2017.06.01.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 2017.06.07. 우리협회 105차 상임이사회,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 및 금액에 관한 기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
- 2017.06.07. 우리협회, 16개 시도 의사회 의무이사들이 참여하는 대화방 개설, 수수료 상한 규제 추진 관련 사전 의견 수렴 진행
 - 2017.06.22. , 제3차 비급여제도개선 정책협의체 회의
 - 2017.06.2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행정예고 기간 2017.07.21.까지)
 - 각 지역 의견조회 실시 : 2017.07.07.까지
 - 2017.06.27. 우리협회,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안 관련 우리협회 입장 발표
 - 정부의 일방적인 진단서 등 가격상한선 설정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며, 이에 절대 반대함
 - 2017.06.28. 우리협회 108차 상임이사회, 비급여제도개선 정책 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 2017.06.28. 우리협회 추무진 회장, 기자간담회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과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입장 재천명
 - 2017.06.30. 우리협회,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안) 관련 자료공개 요청(심평원 · 보건복지부)

다. TF 구성(안)

구분	성명	직책
위원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간사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위원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겸 대변인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진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경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라. TF 업무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관련 검토
- 제증명수수료 기준 관련 의견수렴
- 제증명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부재에 따른 기준 마련
- 동 고시 제정안 개선 관련 대정부 협의 등

2017년 6월 민원처리 현황 보고

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분류 코드	VOC 분류 항목	합계	분류 코드	VOC 분류 항목	합계
1	면허신고	218	26	성희롱 예방교육	0
2	회원증명서	4	27	환자민원 대책	3
3	회원정보 수정	1,447	28	의료 관계 소송	16
4	회원신고	62	29	수가정책	30
5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35	30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5
6	회비	99	31	현지확인, 실사 및 현지조사	2
7	경조비	0	32	부당삭감 및 환수대책	3
8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8	33	건강보험 비급여	0
9	홈페이지가입	132	34	건강검진	1
10	전자차트	1	35	신의료기술	0
11	의료정책	97	36	산재보험	0
12	의약품정책	4	37	자동차보험	1
13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1	38	노인요양보험	52
14	조세대책	1	39	연수교육	228

15	예방접종 대책	2	40	의료감정	88
16	의료폐기물	14	41	종합학술대회	37
17	대리처방	1	42	대한의사협회지	11
18	한방 등의 불법의료대책	1	43	전문의자격 및 수련교육	4
19	의료기관 개폐업 및 대진의 고용 등	6	44	의협신문(구독, 광고 등)	84
20	노무 관리	7	45	의료광고심의	14
21	제증명(진단서 등)	27	46	회원복지사업	16
22	의료기관 명칭 및 간판	2	47	공제조합	23
23	환자 유인행위	0	48	언론대책	3
24	진료정보 열람	8	49	부서안내	39
25	성범죄 경력조회	0	50	기타	358
총 합계					3,195

나. 매체별 민원처리 현황

매체	6월 건수	5월 건수
전화민원	3,177	2,800
의협 홈페이지	11	10
엘로아이디	7	7
합 계	3,195	2,817

다. 다빈도 회원 민원처리 현황

순위	민원내용	6월 건수	민원내용	5월 건수
1	회원정보 수정	1,447	회원정보 수정	1,255
2	기타	358	연수교육	295
3	연수교육	228	기타	286
4	면허신고	218	홈페이지가입	153
5	홈페이지가입	132	노인요양보험	103
6	회비	99	의협신문(구독, 광고 등)	92
7	의료정책	97	의료정책	88
8	의료감정	88	의료감정	87
9	의협신문(구독, 광고 등)	84	면허신고	85
10	회원신고	62	회비	59

대응센터 민원처리 현황(2017년 6월)

가. 총 민원처리 건수 : 45건 (현장지원 1건 포함)

구분	건수	비고(민원 유형)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방문시 대응방안(5) - 현지조사 종료 후 대응방안(2)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대응방안(2) - 과징금 분할납부관련 재무제표 제출관련(1) - 행정처분 관련 대응방법 질의(1) -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관련(1)

공단 방문확인	24	- 자료요청 및 방문확인 대응방안(17) - 비급여항목 진료건 공단 환수통보(2) - 대진의 미신고관련 진료비 환수통보 대응(1) - 방문확인 사전통지에 대한 대응방안(1) - 진료비실태조사관련 문의(1) - 친인척 진료비율 과다 및 본인부담금 면제(1) - 산재보험 현지조사 후 공단 현지확인(1)
심평원 방문심사	1	- 방문심사 대응방법 문의(1)
기타사항	8	- 보건소 고발건(2) - 산재보험 방문관련 문의(2) - 포경수술 진료비 경찰수사관련(1) - 민간보험 회사 요양기관 방문관련(1) - 경찰수사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예정통보관련(1) - 영수증 세부내역서 민간보험 제출 요청관련(1)

1) 민원 발생 시점 기준 조사진행 사항

- 현지조사 대응센터 민원 제기 당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진행 단계

구 분	총 계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후	기타
건 수 (%)	45 (100%)	14 (31.1%)	15 (33.3%)	14 (31.1%)	2 (4.4%)

2) 민원회원 회비 납부 현황

구 분	총 계	직전 3개년 이상 회비 납부	미납
건 수 (%)	45 (100%)	22 (48.9%)	23 (51.1%)

3) 주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조사 대상 선정 사유

촉탁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부당이득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요양병원 근무인력확인
외부기관(근로복지공단) 의뢰	비급여항목 진료 후 진료비 청구
원장 타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 진료비 청구	수액제 처방수량 불일치
친인척 진료비율 과다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상반기 현지조사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개소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민원건수	253	19	10	28	102	49	45
현지조사 실시기관	의과 계 (375개소)	66 (건보 58, 급여8)	52 (건보 45, 급여7)	70 (건보 55, 급여15)	78 (건보 63, 급여15)	73 (건보 65, 급여8)	36 (건보 28, 급여8)
	의원	51	38	50	62	35	13

요양병원	3	6	14	3	11	9
병원	12	6	6	13	26	14
종합병원	·	2	·	·	1	·
한방 (96개소)	9	20	8	6	16	37
치과 (24개소)	4	4	4	5	3	4

가. 분석

- 1) 현지조사 대응센터 개소 전 평균 14.5건
- 2) 3. 22 현지조사 대응센터 개소
- 3) 4월 개소 전 처분관련 문의 급증(개소 전 대비 603% 증가)
- 4) 5월 대통령선거 및 징검다리 휴무로 인한 유관기관 급여사후관리 업무 순연(개소 전 대비 238% 증가)
- 5) 6월 현지조사 실시기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수 감소(개소 전 대비 210% 증가)
 - 한방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급증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개최결과 보고

가. 참석자 현황

날짜	구분	참석자수
6월 25일(일)	사랑나눔 걷기축제	1,200여명
6월 30일(금)	종합학술대회 956명 기초의학 682명	1,638명
7월 1일(토)	종합학술대회 817명 토크쇼 450명 사랑나눔콘서트 650명 별도등록(대한임상약리학회) 190명	1,561명
7월 2일(일)	종합학술대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1,360명
총 계		5,759명 (일반인 포함)

* 참석회원수 비교(34차 : 3,281명, 35차 : 4,005명)

* 등록비 수입 : 21,150,000원(추후 정산보고 예정)

나. 주요 참석자 : 추무진 대회장, 김숙희 부대회장, 이윤성 조직위원장,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국회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미국의사회 Dr.

Gurman 직전회장, 일본 의사회 Dr. Yoshitake Yokokura 회장 등
임원, 대만 의사회 임원, KAMA John Won 회장 및 회원, 병협 홍
정용 회장, 의협 상임이사회 및 의학회 임원, 종합학술대회 조직
위원회 임원 등

- * 영상 축사: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

- 개회식 : 6월 30일 11:20, 호텔본관 2층 그랜드볼룸
- 전시장 테이프 커팅식 : 6월 30일 12:30, 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 대국민건강선언문 발표 질의응답 및 기자간담회 : 6월 30일 13:00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드B

- * KBS, 경향신문 등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 등 50명 참석

- 갈라디너 : 6월 30일 19:00 호텔본관 2층 그랜드볼룸
- 대한개원의협회의 춘계학술대회 개회식 : 7월 2일 10:00 컨벤션센
터 4층 A홀
- 시상식 : 7월 2일 11:00, 컨벤션센터 1층 의인미전 전시장

라. 주요 언론 보도 현황

- KBS, SBS, YTN,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 다수 보도

마. 주요 학술 프로그램

Congress Lecture(CL)		
6월 30일(금)	◆ CL-1	미래의 보건의료 정책
7월 1일(토)	◆ CL-2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수명 관리
7월 2일(토)	◆ SL-1	의사들을 위한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Main Symposium(MS)		
6월 30일(금)	◆ MS 1	인공지능과 의료 I
	◆ MS 2	인공지능과 의료 II
7월 1일(토)	◆ MS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지속가능한가?
	◆ MS 4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정책 혁신(패널토의)
	◆ MS 5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 MS 6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 요인
	◆ MS 7	국민들의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
	◆ MS 8	국가검진 사업을 통한 평생건강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 9 ◆ MS 10 ◆ MS 11 ◆ MS 12 ◆ MS 13 ◆ MS 14 ◆ MS 15 ◆ MS 16 ◆ MS 17 ◆ MS 18 ◆ MS 19 	<p>의료인을 통한 만성질환관리</p> <p>미세먼지, 기후변화와 환경</p> <p>스트레스: 패러다임 전환과 도전</p> <p>Nutrition in Next Generation Health Care</p> <p>정밀의료 I</p> <p>정밀의료 II</p> <p>국가 암검진 현황과 성과</p> <p>국가 암검진 질관리와 발전방안</p> <p>한국에서의 의료로봇 개발</p> <p>국내 의료로봇의 임상적용</p> <p>Application and practical use of 3D printing technology for advanced medical care</p>
Special Symposium(SS)		
6월 30일(금)	◆ SS 1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
	◆ SS 2	보건소 근무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7월 1일(토)	◆ SS 3	공공의료의 미래
	◆ SS 4	의사들은 이렇게 산다. -평범한(?) 의사들 編 -
	◆ SS 5	세계 속의 한국 의사
	◆ SS 6	의사들은 이렇게 산다. -특이한(?) 의사들 編 -
	◆ SS 7	상대가치 점수체계 현황 및 전면개정 방법론
7월 2일(일)	◆ SS 8	Gender-Specific-Medicine
	◆ SS 9	Woman Frontiers of Medical science
	◆ SS 10	KMA Policy란 무엇인가?
	◆ SS 11	일차 의료용 근거기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
	◆ SS 12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국내 정책과 실행방안
7월 2일(일)	◆ SS 13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
	◆ SS 14	의사 시니어 클럽
	◆ SS 15	의료정책 의사면허
	◆ SS 16	의사 국가시험 다단계화를 통한 과학역량평가 도입
국제협력(GN)		
6월 30일(금)	◆ GN 1	Global Academic Network for Korean Medical Doctors
7월 1일(토)	◆ GN 2	Evaluation of Medical System of Korea, Japan, Taiwan, USA and the role of each country's Medical Association and KAMA
7월 2일(일)	◆ GN 3	Future Perspective: Global Networking for Korean Medical Doctors
	◆ GN 4	세계 한인 의대생 학술포럼
	◆ GN 5	세계 한인 의대생 학술포럼
Young Doctor Forum(YF)		
7월 1일(토)	◆ YF 1	젊은 의사의 다양한 진로탐구 I
	◆ YF 2	Various career exploration for junior doctors II
	◆ YF 3	의사의 해외진출
Refresh Course(RC)		
6월 30일(금)	◆ RC 1	군진의학의 비상
7월 1일(토)	◆ RC 2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법규(임상시험 연구자 보수교육)
	◆ RC 3	임상시험 관련 주의사항(임상시험 연구자 보수교육)

	◆ RC 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연수교육
Korean-American Medical Association(KAMA)		
6월 30일(금)	◆ KAMA1 ◆ KAMA2	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spinal disorders: case discussion Caring for the Ageing Population: Strategies and Practice from both sides of the Pacific
7월 1일(토)	◆ KAMA3 ◆ KAMA4 ◆ KAMA5	The progress of the Korean Trauma System Innovative Approach to Cancer Care: Is Immunotherapy the Future of Oncology? Pathways to Global Health
유관 산하단체 프로그램(유관)		
6월 30일(금)	◆ 유관 1	신약 개발의 규제 장벽 분석 및 의사, 제약사의 협력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협회 공동세션)
7월 1일(토)	◆ 유관 2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활성화 심포지엄
	◆ 유관 3	융합 영상술 임상적 적용(대한핵의학회)
7월 1일(토)	◆ 유관 4	Radiation Safety and National People's Health(대한핵의학회)
	◆ 유관 5	Therapeutic target and drug development(대한의학회-대한약학회 공동심포지엄)
	◆ 유관 6	Organs-On-Chips and Clinical Application(대한임상약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유관 7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linical Research(대한임상약리학회 춘계학술대회)
7월 2일(일)	◆ 유관 8	인수공통 감염병
	◆ 유관 9	건강 정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유관 10	신경병증성 통증(대한통증학회)
	◆ 유관 11	노화와 통증: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대한통증학회)
	◆ 유관 12	통증 진단 및 치료의 다양성(대한통증학회)
	◆ 유관 13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대한통증학회)
	◆ 유관 14	1차 의료에서 노쇠/근감소증 관리의 중요성과 실천방안(대한노인병학회)
기초의학학술대회 (기초의학)		
6월 30일(금)	◆ 기초의학 1 ◆ 기초의학 2 ◆ 기초의학 3 ◆ 기초의학 4 ◆ 기초의학 5 ◆ 기초의학 6 ◆ 기초의학 7 ◆ 기초의학 8 ◆ 기초의학 9 ◆ 기초의학 11	대한약리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대한바이러스학회 공동개최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병리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의사학회
제19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7월 2일(일)	◆ 개원의 1 ◆ 개원의 2 ◆ 개원의 3 ◆ 개원의 4	동영상으로 배우는 기본 술기 아는 것이 힘이다! 건강한 중장년을 위한 만성질환관리 효과적인 약물치료

	4. 의사의 해외 봉사 5.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클럽 소개(10분)	장재윤 (KOICA 본부장) 김봉옥(의협 의사시니어클럽운영위원장)
16:20~16:40	Q & A (20분)	

마. 개최 결과

1) 개회사(김봉옥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

- 의사시니어클럽 조직 강화 및 운영, 홍보활동 강화, 관련 단체와의 연계사업 추진, 시니어 의사 대상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임.

2) 축사(추무진 회장)

- 2011년 의사시니어직능클럽을 발족했었으나 활동이 부진하였으므로 이번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니어의사회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시니어의사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

3) 주제발표

- 의사 정년 이후의 삶-second life(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 시니어의사들에게 자기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정년 이후의 삶에 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재능기부와 같은 사회적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함.
 - 시니어클럽 활동은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회성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시니어의사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정년퇴임 의사 인력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의료인의 건강노화 전략과 실천(윤종률 한림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노화 실천방안, 즉 건강생활습관의 유지, 정기검진, 긍정적 사고, 지속적 두뇌활동, 취미와 봉사활동 등의 지침을 제안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노화예방을 위한 학문적 발전, 노인병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안해야 함.
- 의사들의 자원봉사활동(한덕중 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지도자 협의체(MLC) 회장)
 - 봉사장소에서의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 있는 선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봉사활동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파트너와의 협력에서는 한 단체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봉사활동(국내(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해외(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중국)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 정년 전후의 의료계 각 분야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의대에 중장기 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사시니어클럽과 함께 진행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의사의 해외봉사(장재운 KOICA 본부장)
 - KOICA 기관소개가 있었으며, 우리협회와 2016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협력 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의협 의사시니어클럽 소개(김봉옥 의협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
 - 의사시니어클럽의 설립배경 및 주요사업 등을 설명하였으며, 시니어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과, 의협 시니어의사회원 데이터 현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교육, 여가문화사업 등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를 위해 의사시니어클럽이 적극 지원하기로 함.
- 마무리
 - 본 심포지엄이 초석이 되어 시니어의사들의 위한 의료계와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의사시니어

클럽의 방향은 일자리 사업보다는 시니어의사들의 여가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람있고 즐거운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협이 적극 노력하기로 함.

4) 행사사진



제35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감염관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가. 심포지엄 세션 : 유관단체 프로그램 8-인수공통감염병

나. 일시 및 장소 : 2017. 7. 1(토) 09:30 / 그랜드힐튼호텔 2층 스카이라

다. 프로그램

시간	09:30 ~ 11:00
좌장	엄중식(가천의대 감염내과)
발표	1. 조류인플루엔자 (송준영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 2. 큐열 (허중연 충북의대 감염내과 교수) 3. 절지동물매개 감염병 (김동민 조선의대 감염내과 교수)

라. 주요내용

1)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전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임상역학적 특성을 논의함.

2) 주제 및 발표자

- 조류인플루엔자(송준영 · 고려의대 감염내과)
 -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략 10-40년 간격으로 항원의 대변이(antigenic shift)를 통해서 대유행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음.
 - 과거 인플루엔자 대 유행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중간 장벽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고 있음.
 - 대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야생 철새류, 가금류 등에서 분리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로 침입하여 적응변이를 일으키거나 돼지와 같은 중간숙주를 통한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거쳐 출현해 왔음.
 - 새롭게 출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 간에 효율적인 전파가 되는 능력을 획득해야 하며, 발표를 통해서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2가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 H5N1, A/H7N9)를 비교하고, 임상 역학적 특성을 소개함.
- 국내 큐열 환자의 임상 역학적 특성(허중연 · 충북의대 감염내과)
 - Q fever as a cause of prolonged febrile illness and fever of unknown origin in adult
 - . men over age of 40
 - . living in rural areas : geographic variation
 - . The history of animal contact is of little importance
 - Clinical sign & symptoms
 - . severe headache : retroorbital
 - . normal leukocyte count with mildly elevated liver enzyme
 - . cross-reactivity with autoantibodies or infectious agents
 - A negative acute titer dose not rule out Q fever
- 절지동물매개 감염병(김동민 · 조선의대 감염내과)
 - 내원환자 중 농어촌 지역 거주민들이 야생 진드기와 참진드기 감염 환자 사례를 통해 진단방법과 치료 사례 발표

제35차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건강정보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가. 심포지엄 세션 : 유관단체 프로그램 9-건강정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 일시 및 장소 : 2017. 7. 1(토) 13:00 / 그랜드힐튼호텔 2층 스카이라크

다. 프로그램

시간	13:00~15:00
좌장	조비용(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표	1. 건강 정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2. 건강 정보의 해석 - 통계적 관점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3. 건강 정보 질관리와 과학적 평가 전략(조희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 국내외 건강정보 평가도구에 대한 고찰(오승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라. 주요내용

- 1) 언론 기사, 인터넷,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학·건강 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나 근거가 부족한 건강 정보가 많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폐해도 크다. 이에 국내 건강 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강 정보의 올바른 관리와 과학적 평가 방법에 대해 논의함
- 2) 주제 및 발표자
 - 건강정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윤구현 분과위원·간사랑동우회 대표)
 - 검증되지 않은 의학상식들이 국민들에게 전파되어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올바른 정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건강정보의 해석-통계적 관점(황승식 분과위원·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통계적 관점에 대한 무지로 과학적 근거가 약한 의학연구들이 빈번하게 보도자료로 발표되고 있어 건강정보에 대한 올바른 평가체계 또는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건강정보 질관리와 과학적 평가 전략(조희숙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강원의대 교수)

- 양질의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전략으로 ① 개발자의 자발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 ② 양질의 건강정보 절실함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③ 건강정보 평가 결과 확산을 위한 전략 필요
- 국내외 건강정보 평가도구에 대한 고찰(오승원 분과위 간사·서울의대 교수)
 - 대국민 건강정보의 과학적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 및 방법 개발 필요

제16회 의인미술전람회 개최 결과

가. 전시기간 : 2017. 6. 30.(금) ~ 7. 2.(일)

나. 장 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1층

다. 출품작품 : 72점(한국화9, 양화34, 서예13, 사진15, 조소1)

라. 관람인원: 약500명

마.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 2017. 7. 2.(일)11:00,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1층
- 참석인원: 추무진회장 외 약50인
- 식 순
 - 회장님 인사말씀
 - 운영위원장 인사말씀
 - 운영위원 소개
 - 제16회 의인미술전람회 전시작품 현황 보고
 - 시상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4명, 특선11명, 입선21명)
 - 전시작품 관람

바. 시상식 사진



계간 의료정책포럼 제15권 2호 발간

- 인물 :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인물도
- 논단 : 2018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마치며 / 변 태 섭
- 특집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과 그 이후
 - 법 탄생에서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주요 이슈를 통해 본 시사점 / 권 진 희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 / 가 혁
 - 촉탁의 제도 개편과 평가 / 성 중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활서비스 신설 논의에 대한 검토 / 백 경 우
 -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 / 이 윤 환
 - 나아갈 방향 -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 노 용 균

□ 이슈 & 진단

- 19대 대선 각 정당별 일차의료(동네의원) 활성화 공약에 대한 소고 / 김 선 호
- 개정된 현지조사지침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윤 용 선
- 상대가치점수의 위험도 상대가치 강화 / 김 명 성
- 상대가치 2차 전면 개정 주요내용 및 과제 / 김 영 재
- 한국형 ACO 모델, 광역단위 시범사업을 시작하자 / 이 왕 준

□ 기고

- 왜 협동조합인가? 개원가에 부는 바람 / 도 성 훈
- 공직의사로의 길: 일반직공무원을 중심으로 / 이 어 진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 백 은 혜

□ 연구보고

- 주요국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예방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김 계 현

□ 해외의료정책 동향

-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동향 / 연 희 진

□ 눈으로 보는 의료정책

- 정연이의 일기 - 동네의사협동조합(1), (2)

연구보고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발간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중보건의사는 과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의원 수 증가 및 교통발달 등으로 전통적 개념의 의료취약지가 감소함

또한 과거와 비교할 때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 비율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군복무를 마친 남학생의 수가

증가해 공중보건역사의 숫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통적 개념의 의료취약지 및 공중보건역사 숫자의 감소는 향후 공중보건역사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중보건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전무해 공중보건역사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해 공중보건역사의 배치 적정성, 업무수행현황 및 인식 등의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했으며, 정량적 분석은 현재 복무중인 모든 공중보건역사 2,1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정성적 분석은 대외적으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평창군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중보건역사의 업무가 일차진료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중보건역사의 업무를 기존의 일차진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상황에 맞춘 감염관리, 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전환시켜야함
- 또한 이를 위해 공중보건역사가 의료인으로서 전문적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중보건역사 배치 시 특정 전문과 취약지역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함

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현재 공중보건역사들의 현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공중보건역사의 역할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현재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중복된 일차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역사 업무의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